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숲과 바다가 보이는 '정자'처럼 '지워지고 다시 채워지는(RE · PLACE · ING)' 서울만의 모습을 보여줄 것

[유니온프레스=이상민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에서는 12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제12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권문성(건축가/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전시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람들이 건축에서 만나다(People meet in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건축전은 2007년 제7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의 일본관 커미셔너를 역임하고 2004년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일본의 건축가 카즈요 세지마가 총감독을 맡았다.

세지마는 "개인과 사회가 건축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축이 개인과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개인과 사회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한국관은 'RE-PLACE-ING, Documentary of Changing Metropolis Seoul, 압축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도시 서울의 변화'를 주제로 지난 1월 건축가 권문성 씨가 커미셔너로 임명됐다. 신승수(디지오즈건축 대표), 이상구(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충기(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조정구(구가도시건축 대표), 하태석(아이아크건축 대표) 등이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 김문성 커미셔너는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베니스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베니스 카스텔로 비엔날레 공원의 자연과 바다를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한국관만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전시가 될 것"이며, "서울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건축가들의 관찰과 미래 서울의 모습의 가능성을 가능하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베니스 비엔날레가 한 여름에 개막되고 한국관만 외부로 연결되는 이점을 살려 마치 한국의 전통 '정자'와 같은 장소로 만들어 전 세계 베니스 비엔날레 관람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전체의 주제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읽혀짐과 동시에 개성이 살아날 수 있는 한국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가도시건축 조정구 대표는 "우리 삶의 형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replacing'에서 'placing'의 가치로써의 한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이아크건축 하태석 대표는 "언제서부터인가 건축이 일상과 괴리된 채 하이아트화 된 것 같다"며 "이제는 다시 삶으로 돌아가 자신의 공간에 참여를 하고 커뮤니티를 회복해 다시 사회적 도시를 만드는 '미분화된 생활로 적분화된 도시'를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이충기 교수는 "이미 우리의 주거환경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선 만큼 '아파트 공화국'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공동주체에 대한 데이터 작업들과 대체물에 대한 기록들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 참여하는 권문성(성균관대 건축학부 교수), 이충기(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하태석(아이아크건축 대표), 조정구(구가도시건축 대표), 신승수(디지오즈건축 대표), 이상구(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사진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편, 전 세계 건축가들의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는 베니스 지아르디니 공원과 아르세날레에서 8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린다. 비엔날레 기간 중 몇몇 토요일에는 총감독을 비롯한 역대 건축 비엔날레의 총감독들에 의해 기획된 '건축의 토요일'이라는 세미나를 갖고 국제적인 건축가, 비평가들이 토론과 대화, 퍼포먼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895년 시작된 베니스비엔날레는 브라질 상파울루비엔날레, 미국 휘트니비엔날레와 더불어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꼽히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비엔날레에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1995년에는 전수천, 1997년 강익중, 1999년 이불 등의 참가작가가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한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은 1980년 미술전으로부터 분리돼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 저작권자© 1995 데일리 문화종합 '유니온프레스' 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upnews@unionpress.co.kr (뉴스팀) upculture@unionpress.co.kr (문화팀)
 et@unionpress.co.kr (연예팀) movie@unionpress.co.kr (영화팀)
 art@unionpress.co.kr (예술팀) books@unionpress.co.kr (도서팀)
 uplife@unionpress.co.kr (생활팀) upphoto@unionpress.co.kr (사진팀)